

수도권 성인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사 결정 관련 요인

고미경 · 임도선 · 안용순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과

Deciding factors of regular scaling checkup in metropolitan adults

Mi-Kyung Ko · Do-Sun Lim · Yong-Soon Ah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Received : 28 August, 2013
Revised : 13 November, 2013
Accepted : 3 December, 2013**Corresponding Author**

Yong-Soon Ah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53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713 Korea.

Tel : +82-31-740-7228

+ 82-10-2502-8776

Fax : + 82-31-740-7352

E-mail : ahnys56@eulji.ac.kr

ABSTRACT**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ciding factors of regular scaling checkup in metropolitan adults.**Methods** : The subjects were 395 adults of 20s to 50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September 25 to October 4, 2012. Data were self-reported questionnaires.**Results** : Female tried to receive more regular scaling checkup than male. Dental practitioners were acquainted with the dental knowledge and had more scaling checkup. Those who received dental scaling checkup tended to use dental hygiene products and visit the dentists regularly. Those who receiving good dental health services tended to visit the dental clinics more frequently. Higher knowledge and lower fear of dental treatment lead to frequent regular checkup.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kindness, knowledge of scaling and regular scaling checkup. Fear to dental treatment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Conclusions** : In order to increase intention degree of regular scaling checkup,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proper oral health behavior and to improve patient care services by dental hygienist.**Key Words** : metropolitan adults, oral health behavior, regularly scaling checkup**색인** : 구강건강행태, 수도권 성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생존 수명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느냐보다 어떠한 삶을 영위하느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의 개념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건강수명을 사용하고 있다¹⁾.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고 의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2010년도 평균 수명이 80.8세로 일본의 83.0세보다 낮고²⁾,

2007년 건강수명이 71.3세로 일본의 76세에 비해 낮았다³⁾. 또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과의 차이가 일본보다 컸으며, 이러한 차이는 질병 및 부상 등에 의한 고통의 삶을 사는 기간이 이웃국가인 일본보다 길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1년 6월 2일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지향하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⁴⁾.

이처럼 건강과 건강수명연장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의 일부분인 구강건강도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발거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구강질환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다⁵⁾. 이러한 구강질환은 그 특성상 범발성이며,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비가역적, 누진적인 특징이 있어, 발생초기에는 통증이나 불편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초기에 이러한 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워 방치하기 쉽다⁶⁾. 그리고 이러한 구강질환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조기발견과 초기치료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⁶⁾. 서와 박⁶⁾의 연구에서 실제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중 정상으로 판명된 자는 34.7%이며,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구강건강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방적 차원에서 정기적 치과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치주질환은 치아주위조직에서 발생되어 서서히 진행되는 염증성 질병으로 치은 출혈과 종창, 치주낭 형성 및 치조골 파괴 등으로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이 된다⁹⁾.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¹⁰⁾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성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 동안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하였다¹¹⁾. 치주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주치료의 완료 후에도 향후 재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⁹⁾.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의 최선의 예방 및 치료법이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스케일링 시 다른 구강질환의 조기발견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8,9)}.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또한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정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임상에서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¹¹⁾.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스케일링 수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¹¹⁾에 따르면 2011년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50.6%)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스케일링 필요 환자들이 스케일링 수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일반인들이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케일링 수진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산업장 근로자나 직장근로자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및 행태와 스케일링 유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6,9,12,14)}는 많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 성인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의사 결정과 관

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함으로써 구강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2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395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사용된 설문지는 신¹²⁾, 진¹⁵⁾, 황¹⁶⁾의 논문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5문항,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질문 6문항, 구강건강행태에 관한 질문 8문항, 스케일링에 관한 지식 정도를 묻는 6문항, 치과 공포에 관한 질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묻는 질문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진 의향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케일링 지식 정도를 묻는 설문문항은, 최저 0점에서 최고 6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치과 공포를 묻는 설문 문항은 1995년 Humphris 등에 의해 수정된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 (MDAS)을 2011년 황 등¹⁶⁾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PSS ver. 12.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요인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다른 요인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성별 분포는 여자가 50.4%, 남자가 49.6%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5.3%, 40대

가 25.1%, 20대와 50대가 24.8% 순으로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67.6%로 많았으며, 월소득은 151~250만원이 27.3%로 가장 많았고, 지인 중 치과 관련 종사

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8.6%로 많게 분포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N(%)
Total	395(100,0)
Gender	
Male	196(49,6)
Female	199(50,4)
Age	
20~29	98(24,8)
30~39	100(25,3)
40~49	99(25,1)
50~59	98(24,8)
Education	
≤High school	128(32,4)
≥College	267(67,6)
Income	
No income	71(18,0)
≤150	90(22,8)
151~250	108(27,3)
251~350	64(16,2)
≥351	62(15,7)
Whether to have acquaintances of the dental practitioners	
Yes	124(31,4)
No	271(68,6)

Table 2. Intention degree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M±SD	p-value
Total	395	3,30±1,011	
Gender			
Male	196	3,19±1,028	0,036
Female	199	3,40±0,984	
Age			
20~29	98	3,31±1,040	0,221
30~39	100	3,23±0,930	
40~49	99	3,46±1,072	
50~59	98	3,18±0,988	
Education			
≤High school	128	3,35±1,009	0,452
≥College	267	3,27±1,012	
Income			
No income	71	3,31±0,994	0,234
≤150	90	3,22±0,933	
151~250	108	3,24±0,965	
251~350	64	3,22±1,091	
≥351	62	3,56±1,111	
Whether to have acquaintances of the dental practitioners			
Yes	124	3,58±0,938	0,000
No	271	3,17±1,01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or one-way ANOVA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

조사 대상자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전체 평균이 3.30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3.40로 남자 3.19에 비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지인 중 치과 관련 종사자가 있는 사람이 3.58이었고, 없는 사람은 3.17로 있는 사람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연령별, 학력별, 월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

조사대상자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3.53으로 없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고,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에서 3.64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검진방문을 하는 사람이 3.59로 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고, 구강건강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3.58로 없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흡연 유무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별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다른 요인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

조사대상자 중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281명에 대하여 스케일링을 시행한 치과위생사의 친절도에 관해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매우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보통이다'에 답한 대상자를 불친절 그룹으로 분류하고,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에 답한 대상자를 친절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비교하였다. 스케일링 경험자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 평균은 3.53이었고, 스케일링을 시행한 치과위생사가 친절했다고 느낀 그룹은 3.66으로, 불친절했다고 느낀 그룹 3.2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스케일링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매우 불만족했다', '불만족했다', '보통이다'에 답한 대상자를 불만족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에 답한 대상자를 만족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만족그룹에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3.75로 불만족그룹 3.06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스케일링 지식정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이 3.49이었다.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0~3점을 낮은 그룹으로 4~6점을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비교하였다. 스케일링 지식 정도가 높은 그룹이 3.57로 낮은 그룹 2.97에 비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Intention degree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according to oral health-related behaviors

Variable	N	M±SD	p-value
Total	395	3.30±1.011	
Scaling experience			
Yes	281	3.53±0.933	0.000
No	114	2.71±0.957	
Whether to use dental hygiene devices			
Yes	105	3.64±0.972	0.000
No	290	3.17±0.997	
Smoking status			
Yes	100	3.29±0.935	0.943
No	295	3.30±1.036	
Whether to checkup for oral health			
Yes	197	3.59±0.958	0.000
No	198	3.01±0.979	
Whether to have oral health education			
Yes	98	3.58±0.962	0.001
No	297	3.20±1.0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Table 4. Intention degree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according to other factors

Variable	N	M±SD	p-value
Total	281	3.53±0.933	
Kindness degree of dental hygienist			
Unkindness	91	3.27±0.967	0.001
Kindness	190	3.66±0.893	
Satisfaction degree of scaling			
Dissatisfaction	88	3.06±0.889	0.000
Satisfaction	193	3.75±0.872	
Total	395	3.30±1.011	
Knowledge degree of scaling			
Low knowledge	180	2.97±0.945	0.000
High knowledge	215	3.57±0.983	
Degree of dental fear			
Low fear	201	3.42±0.992	0.015
High fear	194	3.17±1.016	

Unkindness (= 'very Unkindness', 'Unkindness', 'normal'), kindness(= 'kindness', 'very kindness')

Dissatisfaction (= 'Very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normal'), satisfaction (=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Knowledge Average degree of scaling of total = 3.49

Average degree of dental fear of total = 10.8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치과 공포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이 10.88이었다.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5~10점을 낮은 그룹으로 11~25점을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비교하였다. 치과 공포도가 낮은 그룹이 3.42로, 높은 그룹 3.17에 비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5.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의 상관관계는 스케일링 만족도와 0.38이었고, 치과위생사 친절도와 0.23이었으며, 스케일링 지식정도와 0.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치과 공포도는 -0.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Table 5).

총괄 및 고안

스케일링은 잇몸질환에 대한 최선의 예방 및 치료법이며,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하여 다른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스케일링 수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20대부터 50대의 일반인 395명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ntention degree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and other factors

	Intention of regularly receiving scaling	p-value
Kindness degree of dental hygienist	0.229	0.000
Satisfaction degree of scaling	0.379	0.000
Knowledge degree of scaling	0.372	0.000
Degree of dental fear	-0.160	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Person correlation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¹⁵⁾의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수진하는 조사대상자가 여자에서 6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¹²⁾와 성별 건강행태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구강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 하루 동안 잇솔질 횟수도 더 많고, 보조구강위생용품도 더욱 많이 사용하며, 정기 구강 검진의 수진율도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¹⁵⁾에 근거해 볼 때, 여성이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인 중 치과관련 종사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인 치과관련 종사자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행태에서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사람이 42.1%라는 김¹⁷⁾의 연구에서도 보듯이, 처음 스케일링 수진 경험이 정기적 스케일링을 받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 중 약 81.8%가 치석제거 경험이 있는 김¹⁷⁾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연구¹⁸⁾에서 최근 구강보조위생용품의 구입이 용이해지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강검진을 위해 치과에 방문하는 사람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구강건강 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¹⁷⁾에서 유추해 볼 때, 정기적 치과방문이 구강건강 신념을 높여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강건강관리 교육이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구강 건강 인식 및 행태를 갖도록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케일링을 시행한 치과위생사가 친절하다고 느낀 그룹에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케일링을 받고 난 후 만족한 그룹에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¹⁹⁾의 연구에서 환자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를 결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서비스변수로 친절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는 결과에서 유추해

볼 때, 치과위생사가 친절하게 환자를 배려한 스케일링을 시행하여 만족도를 높힌다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방문 의도와 정기적 스케일링 의향도는 같은 결과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들의 관련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와 최²⁰⁾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신뢰, 만족과의 관계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치과위생사는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중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속도와 명명한 발음, 적절한 목소리 톤으로 이해하기 쉽게 충실히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였고,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지식수준을 높혀 구강보건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만족도를 높이고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학교교과과정이나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케일링 수진 결과 본인에 돌아오는 혜택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진 지식도 평가에서 스케일링 지식정도가 높은 그룹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강관리에 관한 혜택을 높게 평가할수록, 스케일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¹²⁾, 스케일링과 같은 구강관리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혜택을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 공포도가 낮은 그룹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진¹⁵⁾은 스케일링 전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실제 스케일링 시행 후에도 또 다시 받게 된다는 것에 공포가 크다고 보고하였고, 이것은 스케일링 시술과는 별도로 공포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 등¹⁶⁾의 연구에서도 치과 불안으로 인한 '치과진료약속연기 경험'과 '치과 진료약속취소 경험'을 묻는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고도 치과불안군이 치과에 가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예방적인 진료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치과불안군을 선별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색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치과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¹⁵⁾의 연구에서 스케일링 시 통증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해야 하는 스케일링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치과치료 공포감에 관한 연구에서 마취경험과 우식치료경험이 있는 학생이 공포감을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²¹⁾. 이는 치과 치료의 부정적인 경험이 차후 치과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진료시 치과불안

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치과위생사의 친절도, 스케일링 만족도, 스케일링 지식정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시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환자의 스케일링 지식도와 만족도를 높힌다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 공포도는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케일링 시 환자 개개인의 특색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치과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3.30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 번의 스케일링 수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행태를 갖도록 구강보건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케일링 진료와 구강보건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치과위생사의 자기개발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학교교과과정이나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치과불안군을 선별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색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치과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정에 있어 서울경기지역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표본 추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스케일링 수진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동기 유발책을 모색하기 위한 면밀한 차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잇몸질환에 대한 최선의 예방 및 치료법인 스케일링의 정기적 수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20대부터 50대의 일반인 395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기간 동안 설문지를 배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여성이 3.40으로, 지인 중 치과 관련 종사자가 있는 사람이 3.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구강건강행태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3.53로 높게 나타났고, 구강보조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사람에서 3.64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검진방문을 하는 사람이 3.59로 높게 나타났고, 구강건강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3.5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흡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스케일링 경험군의 치과위생사의 친절도와 스케일링 만족도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스케일링을 시행한 치과위생사가 친절하다고 느낀 그룹에서 3.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스케일링 후 만족한 그룹에서 3.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스케일링 지식정도와 치과 공포도에 따른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는 지식정도가 높은 그룹에서 3.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불안정도가 낮은 그룹에서 3.4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5.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와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스케일링 만족도, 치과위생사의 친절도, 스케일링 지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치과 공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기적 스케일링 수진 의향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올바른 구강건강행태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환자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치과위생사의 학교교육과정과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치과불안군을 선별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색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치과불안 감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References

1. Byeon YC, Lee SG, Park SJ, Lee MG. Regional differences in health expectancy in Korea and policy suggesti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1-112.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ECD Health Data 201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GyeongSeongmunhwasa; 2012: 1-128.
3.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nce: 2009: 1-149.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3rd,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 1-848.
5. Kim JB, Choi YJ, Mun HS, Kim JB, Kim DG, Lee HS, et al. Public Oral Health. 4th, Seoul: Komoonsa; 2004: 75-93.
6. Seo HS, Park GS. The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r of industrial workers at choong-nam province, South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3; 27(4): 641-53.
7. Ko SY, Mun HS, Kim JB, Baek D I. A study on the knowledge, opinions and practices about oral health of workers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1999; 23(2): 183-93.
8. Noh HJ. Cost-benefit analysis of periodontal disease prevention: Focusing preventive scaling. KOSHS 2002; 27(1):55-65.
9. Baek SM. Analysis of treatments periodontal patients[Master's thesis]. Gwangju: Univ. of Chosun, 2008.
10. Kim JD, Kang YK. 2012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3: 1-792.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nlargement of calculus removal (scaling) coverage range at age of over 20 year olds from July (once per year)[Available from: http://www.mhw.go.kr/front_new/index.jsp]. A news relea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ited 2013 May 15].
12. Shin JJ, Jin KN. The Factors influencing of visiting dental clinic for prevention as scaling to workers. Health and Social Science 2006; 21: 97-115.
13. Yu GH, Jeon JG, Jang GW. Oral health status of chollabuk-do province in Korea, 2000(1): Centered by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2; 26(4): 619-29.
14. Jeon MS. Comparative study on oral health behaviors of medical officers and common people [Master's thesis]. Jeollabuk-do: Wonkwang university, 2003.
15. Jin SH. Fear of scaling and its related factors[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ungpook national, 2011.
16. Hwang HR, Jo YS, Bae HS. Factors associated with high dental anxiety by the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 in dental patients and studen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1; 35(2): 145-54.
17. Kim EJ. A study on the belief and the behavior in dental health: Focused on in-hospital patients[Master's thesis]. Gyeonggi-do: Univ. of Dankook, 2001.
18. Han SY, Song KS, Ryu DY. Oral health concern and oral healthcare recognition of some soldier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5): 1007-15.
19. Han JH. The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with dental hygienists affecting patient satisfaction and loyalty[Master's thesis]. Gyeongsangnam-do: Univ. of Inje, 2002.
20. Lee JH, Choi J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medical communication, reliance and satisfaction to dental hygienist.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5): 1017-27.
21. Choe SS, Kim JY, Song GB, Lee SG. Analysis of the related factors of dental fear among teenagers in private dental clinic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4; 28(4): 496-503.